

# 세계 뒤흔든 '트럼프 상호 관세' 미 대법원 적법성 심리 착수

### 트럼프 부과 권한 보유 여부 쟁점 1·2심 불법 판단, 최종심 주목

### 정부 "국가 비상사태 정당 조치" 원고 "과세 결정은 의회의 권한" 빠르게 수주 내 판결, 각국 주목



미국 연방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따지는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대법원 앞에서 '관세는 나쁘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AP통신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기류를 보인 만큼 추후 판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돌연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티븐 배넌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IEP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측 입장 대변에 나선 D. 존 사우어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12개 주를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선조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IEP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지, 어느 나라도,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 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

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 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 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아울러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EP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5000평 추가 확보

### (주)대성문 총 2만 평 부지 추진 국내 최대, 1차 2028년 준공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주)대성문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센터 부지 5000평에 대한 토지 계약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1·2차 사업을 포함하면 에코델타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전망이다.

대성문은 지난날 3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센터 2차 부지 5000평(전력용량 80MW)에 대한 토지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대성문은 1차 부지 1만 5000평(전력용량 180MW)을 포함해 총 2만 평 규모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전력 용량은 260MW로 대폭 늘어났다.

대성문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 PPF'는 1단계 사업 수선 용량 100MW 설계를 완료한 상

### ● 에코델타시티 대성문 데이터센터 현황

	1차	2차
부지면적	1만 5000평	5000평
전력용량	180MW	80MW
일정	다음 달 인허가 완료	지난달 토지매매계약
투자규모	2조 3000억 원	1조 원

\*자료:대성문

황이다. 올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성문이 추진하는 1차 데이터센터는 2028년 준공 예정이며,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첫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 3사는 국내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랙당 120kW 이상, IT Load(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IT 본연의 기능 수행에 쓰이는 전력) 40MW 이상을 요구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GB300 GPU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성문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장이 열리는 2028년부터는 매년 25%가량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온다. 이에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커진다.

앞서 대성문은 지난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사내 사업단에 프로젝트 매니저(PM)와 건설 사업 관리자(CM), 전산 시스템 관리(SI) 등 전문 인력 7명을 배치했다.

대성문 채창호 대표는 "에코델타시티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넘어 AI, 클라우드, 반도체가 결합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jyoung@

## 특검, '김건희 샤넬백' 이어 '관저 이전' 수사 확대

### 6일尹부부 자택 등 압수수색 공사 관련 공무원에 압력 의혹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다음 날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용산구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엄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여사가 운영한 미술술품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직관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관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로서 달간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6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연합뉴스

특검팀은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 등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 여사 영향력으로 관저 공사에 파견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단은 거듭된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이날 12일 심문이 예정된 상태다.

이우영 기자 verdad@

### 부일안내

**대지**  
양정커피상점 138평당 1100만  
문의: 051-863-3195

**상가**  
김사기통매매 10054권 32900  
해당가동 66평 61억 1718  
문의: 010-2644-9718

**매매**  
주목및상가부지 4채서점 대 175평  
주인직 010-8332-3585

###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외의 제출공고)

삼일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삼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5년 11월 7일 갑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재산(원금)의 일부인 전(주)삼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병합대상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병하여 "을"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삼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때에는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르기 전의 채권자는 본 공고기간(이하 "제1회 공고기간") 이내에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025년 11월 7일 "갑" 삼일 주식회사 권해외지국 대표이사 장성진, "을" 삼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권해외지국 대표이사 장성진

### 소장·배달원 모집

부산일보 김해내외지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국에서 함께 할 소장·배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소장·배달원 (경험자 우대)
- 지원 자격 : 원동기면허소지자 무대
- 근무 시간 : 상담후 결정
- 연 락 처 : 010-5536-9227

김해내외지국 부산일보

### "부산 대표부동산" 해안 부동산중개법인(주)

부산시연제구 용양대1091.15층 2642-7023-001368 석유권

**"급급매 빌딩"**  
대지860㎡(260평)  
연면적3942㎡(1193평)  
지하2층 / 지상9층  
대로접 코너 건물!  
더블 거제역세권!  
사옥 및 임대사업 추천  
매매109억

### GS 하이츠 자이 상가

월550만 285㎡+a 매매17억

TEL : 051-868-1306

연산동 최요지! 유동인구 최고!!  
월1430만! 연면적496.8㎡  
매매40억 (소공)010-3454-5277

초급매!! 거제동 아파트! 을수리  
면적 91㎡ 27평 당690만원대! 3룸  
매매18600만(소공)010-8481-8919

### 김해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75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75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김해시장

\* 정정사유 : 김해시 공고 제2025-4782호의 열람공고 기간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리리 14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5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주촌면 선천지구 통화로 정비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정명	도시계획시설결정	금회시정규모	비고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소로2-75호선	10	8	406.8	10	8	17.1	2025.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안-지산신력 대표자 민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해너금융그룹 강남사옥)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유형	비고
1	주촌면 선천리	1434	공	3,484.8	17.1	(김해시)	-	-	-	-	-	-

7. 실시계획 변경 신청 사유  
○ 주촌 선천지구 통화로 정비 사업을 위한 보도확장
8. 열람기간 : 2025. 11. 7. ~ 2025. 11. 21.
9. 관계도면 : 실용생략 김해시정 도시계획과 (T.055-330-6353)에 비치

### 광고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전략 부산일보사의 광고전문인들이 최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산일보사 매체접속  
광고문의 051-461-4336

### 부동산 급매

(1)강서구 강동동 3279 (1034평) 매도가 7억  
(2)강서구 죽동동 달 91-3/91-4 평당 50만  
달 35-14/35-13 평당 80만  
(3)김해 상동 매리 산 8-8 (6930평)  
전 287-9 (570평) 포함 총 매도가 11억  
(4)양산 원동 내포리 (임도유)  
산 145-1/145-2/145-11/145-12 외 다수  
합 47만평 총 11억  
주인직 010-9069-0550

### 서면급매(접합)

약 730㎡(구:220평)  
실인수급 9억5천  
(현재 보1억/월500만)  
정기계약중/수익률 약6.5%  
051-816-5000

### 양산 평산동 과수원 임야 급매

양산시 평산동 3필지  
덕계 무지개 폭포 근처  
★ 과수원 1500평(4960㎡)  
임야 2660평(8795㎡)  
주인직 010-3332-3802

### 요양원, 병원 부지 급매

김해시 구산동 대443평, 건폐율 60%  
최고의 입지, 요양병원 허가특, 매19억  
010-6554-7264  
뉴부산부동산 양산시 동면 역삼리 대로 박영애 약사번호 6830-2017-0003

### 급매! 180' 멋진바다뷰

서생 간월곶 낚은임야/ 현황도로점 / 차량전입가  
달 7000평(23363㎡) 평당8만원 \*자연녹지  
용량5억5천 \*빨리 계약하세요!  
★과수원으로 토지 형질 변경되면 최소5배 폭등★  
051-861-9496